

원도심학교 운영 유형 일원화

도교육청, 4가지 유형별 운영 도내 59개 학교들 내년부터 '원도심학교' 통합 내년 운영 희망 학교, 23일까지 신청서류 작성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내년부터 원도심학교 운영 유형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원도심학교는 전주 29교, 군산 16교, 익산 14교 등 총 59개교로, 학교-지역 협력형 35교, 학교 간 협력형 6교, 교육동음형 9교, 공동통학구형(도시형어울림) 9교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공동통학구형(도시형어울림)은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형으로 흡수·편입하고, 학교-지역 협력형 학교 간 협력형 교육동음형은 유형 구분 없이 원도심학교로 통합 운영된다. 이는 실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만

지정 원도심학교 살리기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학교 운영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2024년 원도심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류

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원도심학교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초 최종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원도심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 선호도 제고 및 원도심학교 신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원도심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원도심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센터가 8월 한달동안 도내 어린이집을 찾아 목공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7일 순수어린이집을 찾아 체험교실을 열었다.

목공예품, 고사리 손으로 직접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 전주·무주·장수지역 어린이집 찾아 체험 선물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는 8월 한 달 동안 전주·무주·장수지역의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목공예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찾아가는 목공예 체험은 목재가공지원센터가 최근 장수군, 무주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과 함께하는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은성 기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목공예 체험을 진행해 온 목재가공지원센터는 7일 순수어린이집을 찾아 26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예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아들은 전북대 관계자와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고사리 손으로 목공예 소품을 제작해보면서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를 시작으로 목재가공지원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전주와 무주, 장수 지역의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돌며 목공예 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급식 위생관리 '중요'

도교육청, 유치원장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일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립 단설 및 사립유치원 원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급식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유치원 관리자의 이해를 높이고, 식중독 예방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는 황순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이 참여했다. 황 과장은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 및 대응요령"을 주제로 △식중독 예방법 △급식 위생·안전 관리 △개인위생 및 식재료 관리 △기구·기계 위생관리 △환경위생관리 △식중독 위생사고 사례 △위생관리 컨설팅 사례 등을 안내했다.
황 과장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급식을 준비하는 모든 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유치원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매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탐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한 전북대학교 '전대청춘' 프로그램이 7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전북대 학생들, 조선통신사의 옛 발자취 따라가다

'전대청춘' 프로그램 본격... 일본 내 조선 역사 탐방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그 옛날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탐방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탐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한 '전대청춘' 프로그램이 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시작돼 학생들에게 지역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그간 고구려 유적과 항일운동의 본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나라사랑 정신을 다졌다.
올해는 38명의 학생들이 일본 내 기업과 과학관 등을 방문한다.
이들은 일본 시모노세키를 찾아 조선통신사의 객관으로 쓰인 아카마 신궁과 상록가늌비 등을 돌아보고, 후쿠오카 내 기업도 탐방한다.
또한 해외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교토 고래미술관과 2만 조선인이 묻힌 귀

무덤 그리고 오사카 과학기술관도 찾는다.
이날 발대식에서 양오봉 총장은 "전대청춘"은 우리대학이 자랑하는 역사·문화 고취 프로그램으로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직접 찾아 나선 학생 여러분의 도전정신을 높이 사고 싶다"며 "입진왜란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사에 큰 역할을 한 조선통신사의 옛 발자취를 찾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출입 안전 강화 방안 마련

도교육청, 최근 발생 교사 피습 사건 등 강력 범죄 예방 위해 학교 출입 표준 가이드라인 엄격 적용... 외부인 신원 확인 철저 출입 관리인력 확대 배치·취약지역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근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출입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 출입 관리인력을 늘려 학교를 찾는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출입 관리인력은 배움터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보호인력을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시니어클럽 등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고화질 CCTV 교체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CCTV(스마트 영상 감지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학교 내·외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안전해야 학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학교 출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 운영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